

성경적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례연구

-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Biblical Business Ethics and
Society Responsibility-KEJI Index

김홍권 · 전병화

- I. 머리말
- II. 성경적 기업윤리
- III.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성경적 의미
- IV. 사례 연구
- V. 맺는말

Abstract

The end of the 1980s was marked as a turning point for Korea's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s. In order to maintain and pursue a corporate main purpose(called "going concern"), it is necessary for enterprise to recognize and adapt to these challenge in our society- demand for business firms' high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many entrepreneurs in business have struggled to promote their obliged social responsibilities. Since 1991, KEJI(Korea Economic Justice Insititute) has developed KEJI Index for numerically evaluating the efforts business firms have tried to fulfill the demand for high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This paper addresses the case study about KEJI Index which supports the process of evaluating biblical business ethics and entrepreneurship to meet mor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Main argum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1) To diagnose the present situation and find the way to future directions for social responsibilities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thical management of corporations.

(2) It proposes desirable directions for corporate moral principles and social responsibilities which ethical business should take on for their standfirm business goals.

I. 머리말

우리는 지금 삼풍, 성수대교 참사, 대통령과 재벌의 비자금 사건에 이어 '한보사건' 같은 파괴적이며, 비윤리적인 권력형 비리사건들 앞에서 분노와 좌절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다. 탐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기업인이건, 정치인이건 공직자이건 정직하지 못한 가치관과 관행의 위력 앞에 대다수의 우리는 속수무책에 가까운 만성적 피해자로 살아가는 한 마리의 어린양에

불과하다. 명색은 다수결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부정적이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소수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집단에 의해 전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강제 당하며, 개혁되어야 하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구조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상실해 가고 있다. 이른바 성장 모범국이 이제는 부패 문화 공화국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¹⁾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 <중략> …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장차 내 대적(對敵)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사 1:23-24)

따라서 세계 속에서 국민적 역량의 통합을 통한 전체적 삶의 질을 개선하며 통일을 예비해 보겠다는 우리의 소박한 이상은 실현은 커녕 그것이 점차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의 급성장이 그 과정의 정당성 없이 목표만을 추구한 한풀(태풍)이 결과의 산물이고, 천민자본주의라는 시대 역행의 부작용으로 작용, 인간의 생명·환경부문·공정한 경쟁과 노동분배 및 경제구조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과다한 반사적 비용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사회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부정직한 기업주와 공직자는 망하게 하는 강력한 법규를 제정함과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효율적인 제도와 함께 윤리적 가치기준(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의 새 패러다임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한다. 미지의 산행을 함에 있어서 나침반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효율성과 함께 중요한 과정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이제 다원적 가치관과 다양한 이익집단을 갖게 된 우리 사회에서 전체가 지향해야 할 뚜렷한 새 목표(하나님에 뜻에 맞는)의 설정과 거기에

1) 1995, 국제 청렴도 지표(TI보고서)상 우리 나라는 10점 만점에 4.29점으로 조사대상 41개국 중 27위.

이르는 합리적인 새 가치기준의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나침반은 커녕 상식적 판단기준조차도 실체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섹터(시민단체)의 개혁자로서 또는 감시자로서의 견제와 균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합리적 시민적 자본주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불신사회 속에서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도가 증폭되는 결과를 갖게 된 이유이다.²⁾

서구 사회에서의 근대 자본주의는 청교도적 경건과 금욕주의라고 하는 성서적 기초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은 “잘 살아보자”는 눈앞의 원초적 본능(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상실된 전통적 윤리 등의 가치관을 대체할 교회와 개인과 기업의 뚜렷한 성경적 실천윤리 기반은 매우 허약했다는 강한 자가 비판이 사후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우리 기업 중에는 성경적 기업경영이 매우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도 청지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기업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기업을 사유물(인본주의적)로 여기고 있는데서 비윤리적인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찢렸도다). 그러나 한편 다행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건전(하나님과의 회복)하지 않으면, 효율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되고 그런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깨어난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 말은 우리 나라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체제에 있어서 후진국형 저개발 국가의 종말인 동시에 새로운 도덕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제정의연구소에서는 지난

2) 공보처 발행,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국정신문, 1997.1.1, 앞 조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 (1) 시민단체, (2) 군대, (3) 의료기관, (4) 교육기관, (5) 종교기관 등 순위로 나타남.

91년부터 한국적 자본주의 정신의 가치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한 도구(제도)로서 기업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구체적 가치기준(경제정의 지수(KEJI INDEX))을 개발, 기업과 사회에 자그마한 향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성경적 기업가 정신은 무엇이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이 지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 가치가 실현되고 더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30-31)

II. 성경적 기업윤리

1. 사회적 책임실천의 우리 원형(原形)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는 기업의 목적과 사회의 목적에 따라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목적은 역사적으로 다음 표와 같이 크게 3단계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1단계(미시경영)	제2단계(거시경영 A)	제3단계(거시경영 B)
이윤 극대화 경영단계	수탁경영 단계	생활의 질 경영단계
경제적 기업목적의 추구 (자본가적 이윤의 추구)	사회적 기업목적의 추구 (이해관계자 이익의 추구)	균형적 다원목적의 추구 (사회적 목적의 확대)
순수한 사적이익	사적이익 공헌이익	계몽된 사적이익 공헌자의 이익, 사회의 이익
나에게 좋은 것은 나의 국가에도 좋음	우리 기업에 좋은 것은 우리 국가에도 좋음	사회에 좋은 것은 우리 기업에도 좋음
극대이윤의 추구	만족이윤의 추구	적정이윤의 추구

자료 : R. Hay and E. Gray, "Soci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Manage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Mar. 1974), p. 141을 수정 인용함.

대략 1단계인 ‘이윤 극대화 경영’은 산업화가 시작되는 경제발전의 초기에, 2단계인 ‘수탁경영’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제발전의 성장기에, 3단계인 ‘생활의 질 경영’은 산업화가 무르익는 경제발전의 성숙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기업과 사회, p. 138].

수년 전 제1회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故장기려 선생님이 수상 소감으로 “내가 이처럼 자그마한 인생의 가치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세 개의 말씀이 늘 힘이 되어 주셨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사람을 섬기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하신 고 백낙준 선생님(전 연세대 총장)의 말씀이고, 그 둘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2절의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고, 그 셋은, ‘인자(仁者)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한 성경말씀(막 10:45)이었다”고 고백하시므로 장내를 숙연케 한 것을 상기하게 된다.

또 그분은 이복에 두고 온 부인과의 만남은 매일의 간절한 소원이지만 남북한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전자가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 경영자(고신의료원 설립운영 등)로서 투철한 청지기 정신의 표현이라면, 후자는 어떠한 극한상황 하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목적과 수단의 등치성(等値性)을 분명히 보여 주신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이타적인 뜨거운 인간애의 신앙고백이요, 기도문으로 우리의 심령에 지금까지도 깊고 큰 감명을 주고 있다. 물론 이분은 의사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선택된 분이었다는 직업상의 특성이 있으며 일반 기독교 기업인들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분의 행적을 다 닮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이 중에도 우리 제1회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인 한국유리의 최태섭 회장도 91년 12월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은 곧 내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기업주들은 욕심이 생기고, 또 나만 잘 살겠다는 비윤리적인 기업태

도가 생기는 것이지요”라고(답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소감을 피력하였다. 그 뒤 최 회장은 인간 상록수에도 추대되었는데 82년 간의 생애, 그 중 반세기를 사랑, 회생, 봉사를 뜻대로 세워 기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온데 대한 세상의 작은 보상이었다.

그 때 한국유리 노조 위원장에게 TV기자가 경제정의기업상 수상 소감을 묻자 “예, 우리 회장님은 종업원 체육 시설 하나 마련하시는 데도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니 저희들은 종종 답답할 정도지요”라고 즐거운 불만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당시 이 나라는 90년도에 재벌들의 땅투기 적발을 위해서 5.8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조치까지 시행했으나 지속된 땅투기와 전세값 폭등으로 수많은 서민들이 자살까지하는 그러한 어려운 때였다는 점에서 최회장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지 않고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성경적 기업인으로 볼 수가 있다.

최회장은 수상 당시만 해도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유아원에 이르기까지 20여 개의 교육, 복지, 종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유산 안남기기”운동에도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 사람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나누어야 한다는 신조로 60년대 초부터 사내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61년도에는 자발적으로 노조를 설립한 뒤 그때까지 노사분규가 한 번도 없었고, 69년 기업을 공개 종업원 지주제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7개의(현재 9개) 계열 기업도 모두가 유리 관련 기업으로 오직 한길을 파며(업종 전문화), 세계 10대 유리 기업의 반열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천민자본주의적 약육강식의 기업환경 속에서 이렇게 청지기 정신으로(청교도 정신의 약점까지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 성경적 경영을 실천하면서도 기업이 존립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약 이 한국유리가 과거에 다른 대부분의 재벌들 처럼 땅투기나 정경유착, 또는 업종 다각화 등과 같은 비성경적 경영을 해왔다면 80년대 말 30대 재벌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었을까는 모른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이런 성경적 경영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순종하는

순교자일 수도 있다(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기업인은 우리 사회에 10명, 50명, 100명으로 늘어나야 하고 최 회장과 같은 정도(正道) 경영자들이 잘 되는 그런 제도와 기업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 프로테스탄트 기업윤리와 한국 자본주의의 실체

고전적 칼빈주의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적 기업윤리의 기준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 또는 어떤 수준의 자본주의 정신세계에 도달하여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이번 주제의 접근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마디로 칼빈이나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을 극복하기는커녕 400년 전의 루터의 심정 윤리나 칼빈의 선택설 또는 예정설(Gnadenwahl)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청지기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인주의적 책임윤리, 효과윤리, 막스 베버의 금욕적 자본주의와 기업가 정신의 경지에 도달하기는커녕 비합리적, 전기적(前期的)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 정신과는 너무 먼 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100여 년 전에 베버가 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적 자본축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對內道德, 對外道德³⁾이 분리되어 집단이 기주의가 지배하는 것을 크게 경계하고 당시 독일의 기업가가 가부장적(家父長的)으로 권력과 결탁하여 비합리적인(부정한) 영리 추구를 하는 것은 「반동적인 자본주의」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것은 「정치적 자본주의」, 윤리적 제한없이 모험적 투기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

3) 천민자본주의 시대의 한 개념으로 대내도덕(Binnenmoral)은 혈연, 지연 등 집단 내에서는 온정과 향토애로 이해타산을 초월해 대우하는 것. 대외도덕(Außenmoral)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사기, 도둑질 등을 자행하는 것. ※ 공정 거래법상 우리 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 행위”의 유형

자본주의적 모험가」로 「천민 제급이나 장인 자본주의」 또는 「천민자본주의」라고 비판 또는 정의했던 비합리적인 전근대적 자본주의 행태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다만 분배 문제만은 신에게 맡겼던 칼빈과 베버의 약점만을 수용하는 큰 우(愚)를 범하면서 말이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적인 자본주의 정신없이 대체적으로 정부의 특혜를 받아 성장한 소수의 거대 재벌들이 이제는 국가의 경제력과 정치, 사회, 언론, 문화의 여러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정상적인 후기 경제균형개발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데, 더구나 지금은 정치권력에서 경제 권력으로 권력의 축이 빨리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짧은 경제발전사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소수의 경제,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한 천민자본주의, 반동적 자본주의, 정치적 자본주의가 모두 혼재(混在)된 거대한 카오스와 아노미 현상의 도전을 위기의식을 갖고 응전하며 극복해야 할 역사적 순간에 처해 있다.

3. 한국의 천민자본주의 극복과 교회의 반성

마틴 루터는 세속적 직업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행을 개인의 도덕적 실천의 최고 명제로 보았으나 이것은 이신득의(以信得義)의 심정(心情)적 정적(靜的)측면의 윤리인 반면 칼빈은 선택받은 자로 하여금 ‘신의 영광을 빛내게 하는 것’이 중심 관념으로서 그것에 도달하려는 책임과 효과윤리, 즉 동적인 측면의 적극적인 실천윤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의 차이는 일찍이 바울 사도와 루터로 이어지는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써만 의롭다고 하는(갈 2:16, 롬 3:28) 신념과 아모스, 베드로, 야고보, 칼빈으로 이어지는 선택된 자도 선행으로 의롭게 된다(약 2:14, 신 28:30, 롬 2:6)라고 하는 신념의 차이가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교단에도 영향을 주

고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이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와 교회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19세기 복음주의 이후의 서구 사회에서도 믿음의 깊은 기업가들조차 신앙과 기업활동을 분리하여 살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1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과 많은 기독교인 기업가가 있는데도 비기독교인과 차별화가 안되므로 기업윤리문화는 물론 사회 전체의 도덕성이 추락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이신득의 복음중심 신앙은 독재정권과 경제성장과 타협하며 기복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과정을 밟아 온 것이다.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순종해야 한다(롬 13:1-2). 그러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는 결연히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행 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을 우리는 회피했던 것이다. 그 결과 종교기관의 사회적 신뢰도는 매우 낮은(5위, 주1 참조)데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한국 교회가 이신득의(갈 2:16, 롬 4:1-3)라는 복음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 계명으로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마 7:21, 눅 8:21 등) 하는 실천윤리를 조화있게 해석함으로써 한국의 기독교 정치인, 공직자, 기업가들이 윤리적 책임에도 열심있는 청지기(기업가) 정신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될 때 칼빈이나 베버의 “분배문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약점까지도 삼상 2:6-7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신다”와 잠 28:27 “가난한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치 않으려니와 못본 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와의 조화있는 해석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성경적 의미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

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4-25)

오늘날 기업은 생산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공헌하고 스스로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한다. 기업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우선 수익성이 높아야 하며, 지속기업으로서 안정성과 성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아야 한다. 이러한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기업을 평가하려는 노력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능률협회,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등에서 해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우량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경영성과만을 가지고 그 기업이 ‘정의로운 기업’ 혹은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의롭지 못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수익을 올리고 성장을 빠르게 하면 경영성과에 의한 평가에서는 우량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어도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혹은 정의로운 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창의와 혁신으로 사적 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법을 지키며, 사회적 공헌도가 높아야 한다. 사회적 공헌도란 먼저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기업활동이 건전, 공정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종업원 기여, 기술혁신, 환경오염 예방과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의 총체적 기여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에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을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경제정의실수상기업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경제정의연구소, 1994].

- ① 기업주의 소유집중을 완화하고 경영을 전문화하는 기업
- ② 재테크와 불건전 지출을 지양하며 본업에 충실하는 기업
- ③ 공정거래질서와 기업 관련 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

- ④ 산업공해 예방과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기업
- ⑤ 종업원 능력개발, 복지증진과 산재를 방지하며 노사화합을 이루는 기업
- ⑥ 창의와 기업이 정신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기업
- ⑦ 사회복지·문화·지역사회지원 등 사회 공동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
- ⑧ 기업정보를 성실히 공개하며 고객 만족에 힘쓰는 기업
- 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기업
- ⑩ 효율적 고용증대와 국제화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의로운 기업을 선정하고 있지만 기업활동을 실증적·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입수하는데 따른 애로로 인하여 정의로운 기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 동안 보여 온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최선의 방식으로 가장 공정하게 정의로운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91년의 제1회 경제정의기업상 시상식에 붙여 91년 중앙경제신문의 사설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경제정의연구소의 이러한 노력이 건전한 기업윤리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

1. 기업활동의 건전성(20점)

가. 주주구성과 기업경영자 독점정도 :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것은 소유의 분산을 하지 않고, 기업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여기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업주는 물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까지 합산한 것(내부 지분율)으로 이 지표가 기업의 건전성을 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답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내가 전에 꾀방자요 꾀박자요 폭행자이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답전 1:13).

경영세습상태와 전문 경영인의 참여 정도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달란

트를 재능대로 종에게 맡기는 비유로 볼 수 있다(마 25:14-19). 청교도적 금융적 직업윤리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억제와 지속적인 훈련으로 전문인이 되는 것이 자기와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보았다(벤전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눈물겨운 경험이 없는 재벌 2세는 비록 학벌과 지식은 뛰어나다 해도 경영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의 헛됨은 시 49:10 “제가 보리보다 지혜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를 참고할 수 있다.

나. 투자지출과 기업활동의 건전성 : 보유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로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차용만이 허용된다(레 25:23).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땅을 통한 기업의 이익 실현은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고 이로 인해 부의 편재가 심화되고 일반 약의 뿌리가 되었다(딤후 6:10).

따라서 이 땅에 대한 기업의 정직성 여하가 기업성장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였고 이것이 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잠재적 큰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조세 연구원도 기업의 토지 재평가 제도를 없애는 것이 비윤리적인 기업의 행태도 막을 수 있다고 정책 대안을 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의 공개념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성 지출 행위인 접대비·기밀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우리 사회만의 악습이다. 연간 약 4-5조원의 접대비 지출은 사회에 퇴폐·향락문화를 유발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뇌물과 비자금으로도 은폐될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기업의 장기투자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접대비는 없애거나 손비처리를 축소해야 한다(계 18: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商賈)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계 18:7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리라’ 출 23:18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광고선전활동은 자본주의 보장책으로 등장하여 접대비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절제와 경건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허위, 과대, 선정적 광고로 소비자를 속일 수도 있다. 연간 5백대 기업이 5조원 이상의 광고비를 씀으로써 정당한 기술개발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잠 21:6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 안개와 같은 것’).(※ 연간 150여건의 대기업 허위, 과대, 선정적 광고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광고 독점으로 중소기업 광고 기회를 막는 불공정 경쟁이 되고 있다.)

사치품과 탈세 행위는 성경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납세는 기업가의 중요한 법적 윤리적 의무이고 사회복지 향상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납세 정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자본주의의 병폐(분배)도 시정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 정보도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자본조달의 건전성 : 이것에는 부채의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대기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94년 약 20%로 일본의 30% 미국의 40%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비중이 높다. 우리 기업의 높은 부채는 청지기 정신으로 금욕과 절제를 하지 않고 재테크, 과다한 소비성 접대비·광고비 지출 등 자원을 불건전하게 운영한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상호지급보증(잠 22:26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은 재벌들이 상호 출자로 업종을 다각화하고 계열 기업을 늘리는데 사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으며 금리와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30대 재벌은 1년에 GNP의 1-3%로 추정되는 약2조원의 불공정한 금리차 지대 이익을 얻기도 한다(강철규, 재벌의 금리차지대와 소유구조, POSRI 95.2)(※최근에도 30대 재벌의 위장 계열사(중소기업)가 100여 개 적발되기도 함). <한보>같은 재벌의 부도로 국제적인 신뢰도마저 떨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 30대 재벌의 과다한 부채는 기업은 물론 나라 경제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⁴⁾

4) 97.1.10,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의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손원익, 박경서), -부채 비율 높은 기업 세제상 불이익

따라서 30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2001년에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지(初志)도 앞당겨 관철되어야 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 13:8).

2 기업활동의 공정성(15점)

“오직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심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신 25:15-16).

자본주의 병폐의 하나이기도 하며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대기업의 기업 결합, 시장지배 지위남용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되는 것은 경쟁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내부 거래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등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며 사회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부실한 계열 기업의 퇴출을 막아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며 모기업까지 부실하게 하는 위험을 안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의 강화가 한층 요구된다. 법 실시 후 95년 현재 과거 13년간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대기업이 불공정하게 조성된 자본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여 단일 기업으로서는 우리 나라 최고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점 등은 참으로 역사적, 성서적 기준에서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눅 17:2 “제가 작은 자 중에 하나(중소기업)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고 말씀한 성구를 기억하며 이제는 자중자제(自重自戒)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경쟁자들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기업공정거래질서와 법규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의 구성에 건전하고

및 재벌의 자기 자본 계산방식 개선으로 계열 기업간 출자 제한.

탈세나 사치품 수입이 없어야 하며 기업활동과 자본조달에 깨끗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공정 거래는 이윤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타기업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경적인 행위가 아니다. 경제력 집중과 부당한 공동 행위, 하도급 거래 행위 등은 모두 이윤 추구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특히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해치는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자본기술 인력을 적절히 지원해 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사회봉사 기여도(10점)⁵⁾

도시화와 지역경제 불평등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업장의 설치와 일사일촌운동과 같은 직접적인 협력체제도 갖추어야 한다. 기업들도 사회복지, 문화,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사회지원(기부금 포함), 사회복지(장애인 고용·고령자 고용·복지지원), 사회 봉사 등].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큰 강령(마 22:39)과 레위기 19장의 각종 복지 제도를 보더라도 기업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이익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가. 사회복지 : 먼저 ‘자선기부행위’가 있는데 삼상 2:6-7만을 강조하지 말고 신 15:11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잠 11:24)와 마 6:3(왼손이 모르개)도 균형있게 강조되어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몇 배나 덜 고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생산성을 이유로 의무 고용목표(근로자의

5) 구제는 경제행위의 일부로서 “경제”라는 용어가 동양에서는 원래 “經世濟民”에서 출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의 약 0.43%선만을 고용하고 나머지는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00만이 넘는 장애인들의 인간적 대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런 소자 중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마 10:42)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복지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은 남는 이익을 사회의 최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30개 재벌 중 7개(93년 현재)가 복지재단 자체가 없고 기업의 89개 공익 재단을 통한 사회복지 지원 금액은 연간 2천억 원에 이르지만 복지재단의 운영이 계열회사 주식 지분 확보와 불법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영 주체의 객관성이 낮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나 운영면에서 투명성, 객관성이 필요하다. 최취약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출의 순수성과 효율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고아, 양로원은 물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소년소녀가장, 암협회 등 구체적으로 지원 우선 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신 14: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 사회지원 : 우리 나라 100여 개의 기업은 농협 주관의 1사 1촌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아주 미미한 상태다.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본사나 공장의 지역 배치와 기업시설의 지역 개방과 현지인 고용확대, 환경복구, 범죄예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시민기업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이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개발되고 지역사회도 기업에게 생산적으로 반응하여 상호이익이 될 수가 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역시 기업발전도 사회정신문화(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표로 선정하고 있다.

4. 환경보호 만족도(15점)

우리 나라는 특히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96 필자가 스웨덴 정부의 분석 자료(92년 현재 전 지구의 환경파괴 복구비용은 약 1조 8천억 달러)를 세계 속의 우리 GDP 등과 대비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도 그 복구비용이 약 40조원(5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정부와 기업의 환경관련 예산은 1년에 약 7조원). 인구 전환점과 환경 전환점의 가설 등 성장과 환경이 반드시 시소게임이 아니라는 긍정적인 보고서도 있지만 전 인류의 절제와 나눔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이 긴박한 과제이다. 지구환경파괴의 책임은 선진국에 있다고 선언한 리우회의('92) 등이 아니더라도 어느 종교보다도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천지를 파괴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지구촌 비기독교 빈국들에게 속히 가야 할 큰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다(눅 12:21 백합화와 솔로몬의 비유).

기독교는 선악과 사건 후 창세기 1~2장을 크게 왜곡하고 하와의 불순종과 노아의 후손들에게 흩어져 살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벽돌과 역청 등의 기술을 개발, 집단(도시)생활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주: 창 1:28중의 “땅을 정복하라”는 창 1:28 “땅에 충만하라”의 방법 즉, 이 말씀은 지구 전체에 흩어져 충만하라는 뜻이 되고, 그러한 방법을 쓰면서도 창 1:28을 비롯, 창 1:26에서 “다스리라”, “다스리게 하자(경영 위임)”가 2번 반복된 뒤 창 2:15는 그것을 “다스려 지키게 하시고”(선한 청지기 책임)로 세 번이나 강조한 사실을 외면하고 땅을 “정복하라”만을 강조한 것이 환경문제의 시작이었다. 전체 환경오염의 약 50%가 기업의 책임이므로 기업은 환경원가 개념으로 폐기물을 재활용(마 14:13-33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에너지 등 자원을 절감하며, 투입→산출→소비→회수의 전 과정이 환경친화적으로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수단의 하나로 환경 기술개발(특히 실용신안)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5. 소비자 보호 만족도

기업은 사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재화를 생산하여야 그 효용이 높아 간다. 이때 기업은 정보를 성실히 공개하며 소비자 보호와 고객 만족에 힘쓰는 것이다. 사회적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결함이나 피해 구제를 위해 고객 만족 경영으로 임하는 것이 회사 전체의 이익 극대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과 오랜 내구성을 가진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고 또한 이 권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사치 욕구와 소비성향을 높이는 데 급급한 상품보다는 지속적인 유익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상품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경영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속물근성을 자극해 탐욕을 부추기는 품목들에 대해 주의하며 그리스도인 생산자들을 주의 깊게 독려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 측면에서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단 6:2)과 같은 말씀에서, 광고의 진실성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 11:3)는 말씀에서, 약관의 정당성은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히 네 종이 되겠느냐”(욥 41:4)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종업원 만족도(15점)

“성경적 경영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막 10:45), 발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따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따는 것이라(고전 9:10),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잠 12:10)”처럼 경영자는 각 종업원의 개별성이 존중되고 그들의 창의력과 생산력이 고무되며 인정되고, 가치있게 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을 통한 종업원 능력 개발을 중시하고 정당한 임금지급과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애 쓰는 기업이어야 한다. 경영자는 기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받아들이며 종업원 대하기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

게 하듯 해야 한다(골 3:23). 노동자의 권리는 이윤 중에서 정당한 임금과 정당한 몫을 받을 권리, 또 그에 못지 않게 작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은 종업원들에게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는 지표들이다. 신 22:8 “네가 새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르는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고 하고 있으며, 이 지표는 또한 노사화합을 깨뜨리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나라는 최후진국형 산업재해국가로 1년에 산업재해 약 10만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약 2천5백 명의 사망과 직업병이 발생하고 1년간 약 5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사내복지기금에 관해서는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 노사화합은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경영정보 공개정도는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하다. 노동법은 애가 20:8-9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라”. 교육훈련 능력급은 고후 9:6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 고용평등은 약 2:1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약 2:9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등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다.

7. 경제발전 기여도

가. 연구개발의 노력과 성과 : 환경을 회복하고 환경파괴(인간복제)와 안전사고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기업가(인류)의 최고 윤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창 1:31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고, 그런데 창 11:3-4에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행 17:29 “이와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95년도 우리 나라 전체 연구 개발비 투자 중 상위 20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집중도는 57.5%로 94년보다 3.1%나 증가하였다(과기처 97년 2/13).

나. 경영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수익성·성장성·설비투자·조세납부·인력·노동생산성] :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마 25:26)는 말씀에서, 조세납부는 마 22:21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서 교훈을 준다.

다. 대외교역 : 잠 14:34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신 15:4-5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 15:6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IV. 사례 연구

성경적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따른 기업이 정신을 토대로 경제정의 지수에 의한 실제 기업평가 사례를 들고자 한다. KEJI INDEX 모형의 평가 지표는 그 질적 특성을 보기 위해 자료원이 검증된 자료들인가, 신뢰성은 추정치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가, 중요성은 평가목적에 얼마나 기여해 주는가, 타당성은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에 충실했는가, 일반성은 차별화

여부(공통성, 보편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모형 자료에 대해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측정 및 평가 방법은 사회 공동체적 성과를 반영하는 기업활동의 건전성, 공정성, 사회봉사 기여도, 환경 기여도, 고객만족 기여도, 종업원 기여도, 경제발전 기여도 등 7개 부문 64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각 지표의 측정척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에 의하여 지표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를 구하였다.

첫째, 이변량 자료로 특정 활동의 유무, 존재여부와 같이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바람직한 활동에 60점,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에 40점을 부여하였다.

둘째, 연속형 자료는 평가대상기업의 실적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실적치의 평균이 50점이 되도록 하여 표분화된 편차값을 이용하여 점수를 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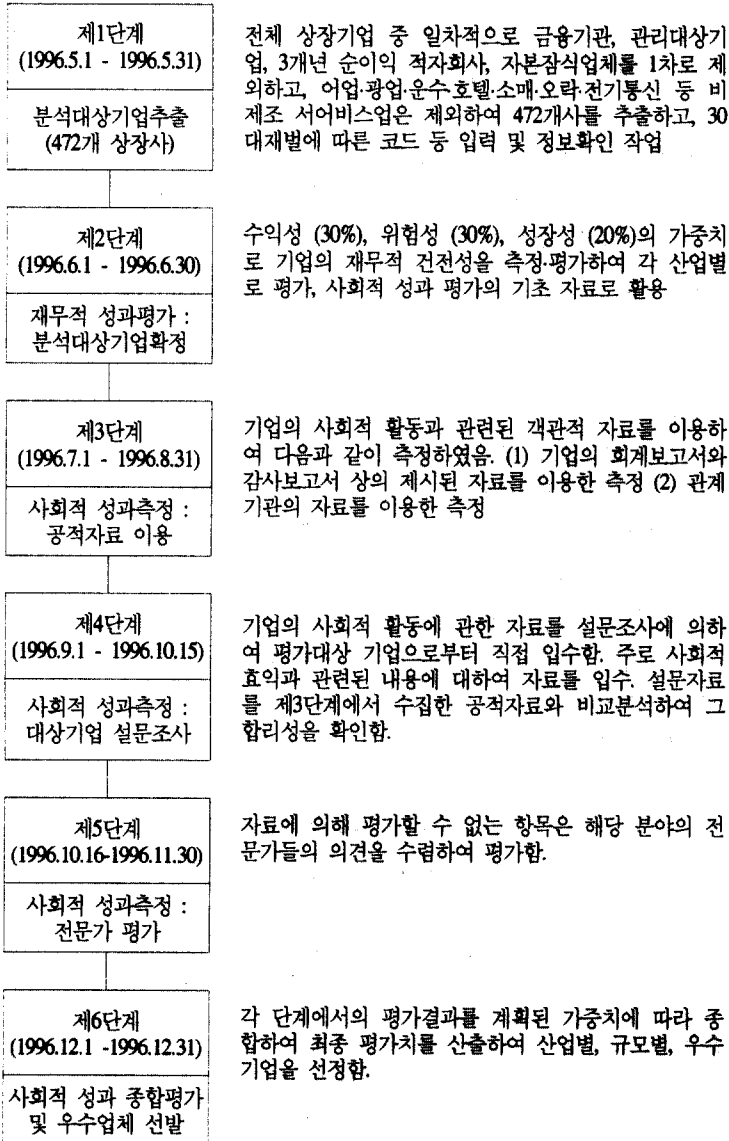
셋째, 기타 형태의 자료들은 자료의 형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그 평점화 프로그램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조 건	평점화 산출공식
$1.645 \leq Z$	$95 + 2.5 * (Z - P90) / (P95 - P90)$
$1.282 \leq Z < 1.645$	$90 + 5 * (Z - P70) / (P90 - P70)$
$0.526 \leq Z < 1.282$	$70 + 20 * (Z - P30) / (P70 - P30)$
$0.526 \leq Z < 0.526$	$30 + 40 * (Z - P10) / (P30 - P10)$
$1.282 \leq Z < -0.526$	$10 + 20 * (Z - P5) / (P10 - P5)$
$1.645 \leq Z < -1.282$	$5 + 5 * (Z - P0) / (P5 - P0)$
$Z < -1.645$	$0 + 2.5 * (Z - P0)$

이러한 지표별 점수에 앞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7가지 평가항목별로 가중평균하여 KEJI 지수를 산정하는 것과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KEJI 지수 = 기업활동의 건전성 * 20% + 기업활동의 공정성 * 15%
 + 사회봉사 기여도 * 10% + 환경기여도 * 15%
 + 소비자보호기여도 * 10% + 종업원기여도 * 15%
 + 경제발전기여도 * 15% ± 특별고려항목



- 조사기준 : 재무자료는 1995년말 회계년도 결산자료를 「상장회사협의회」 또는 「한국신용평가(주)」를 통하여구입

• 第1段階 : 分析對象企業의 抽出段階(1995年 상장제조업 472社)

기업선정 : 제외대상기업의 속성(96년 3월말 727사 中)

- | | | |
|-------------------------|-------|------|
| 1. 일반어업과 석탄광업 및 금속광업 | : 6사 | |
| 2. 건설업 | : 2사 | |
| 3. 도·소매업 | : 43사 | |
| 4. 운송업 | : 16사 | |
| 5. 금융·보험업 | : 99사 | |
| 6. 전기가스 및 중기업 | : 5사 | |
| 7. 그외 비제조서비스업 | : 4사 | 175사 |
| 8. 3개년 순이익적자회사 | : 21사 | |
| 9. 자본잠식업체 | : 11사 | |
| 10. 관리 및 자료미제출사 | : 24사 | |
| 11. 합 병 회 사 | : 13사 | |
| 12. 결산기변경사 | : 2사 | |
| 13. 신규상장사(96년 1월 1일 이후) | : 5사 | |
| 14. 부도 | : 4사 | 80사 |

제외된 총기업체수 : 255사

선정된 분석대상회사 : 472사

• 第2段階 : 業種別 成果順位에 따른 分析對象企業의 確定段階

① 업종구분

- | | |
|--------------------|--------------|
| (1) 음 식 료 품 업(46社) | : 식료품, 음료수 |
| (2) 섬 유 의 복 업(68社) | : 섬유, 의복, 피혁 |

- (3) 종이·제지 출판업(25社) : 종이, 나무, 제지, 출판
- (4) 화 학 업(65社) : 일반화학, 타이어, 석유제품
- (5) 제 약 업(31社) : 제약
- (6) 1차금속 및 비금속광물(58社) : 1차금속, 비금속광물
- (7)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38社) : 조립금속, 기계장비,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 (8) 전 기 전 자 업(65社) : 전기기기,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장비
- (9) 자동차시계정밀 및 기타제조업(38社) : 자동차운송장비, 의료·시계정밀,
가구 등
- (10) 건 설 업(38社) : 건설

② 규모구분

- (1) 대형규모(147社) : 매출액 또는 총자산 3,000억원이상
- (2) 중형규모(166社) : 매출액 또는 총자산 1,000억원이상·3,000억원 미만
- (3) 소형규모(159社) : 매출액 또는 총자산 1,000억원 미만

이상의 절차는 기본적인 분석의 전제조건이며 이후 본 분석은 다음과 같다.

- 1) 자료의 입력(coding) : 정부부처·국회·기업체·연구소 등에서 수집한 자료
의 데이터베이스 입력

- 외부자료(C:\FOX\KJ6) - 재무자료, 공적자료, 설문조사자료
1SDN, DBF, 2JST, 3SSD, 4ENV1, 5CSD, 6EMP, 7ECD

- 기타자료

SD01 : 대주주 지분율.

SD02I : 대주주임원수, SD03 : 상호출자금액, PROCESS : 입력된 지표
현황, EN29 : 폐기물 처리결과, EN27 : 예치금현황, EN27-1 : 예치금,

EC50 : 기업체 특허현황, EM37 : 중대재해, EN28 : 에너지 사용실적,
SIZE : 기업규모 변화기업체, TOTALEMP : 총사원수, UNION : 설문
회수노조, RECEIVE : 설문회수 기업체, SD08 : 관세법 위반 기업체

(1) 기업의 건전성(SDN)

SD02I : 전문경영인 정도 - 대주주 경영독점정도(총임원수와 대주주임원
수 입력)

- SD02IT : 총임원수, - SD02IS : 대주주임원수

- SD02P : 대주주지분율

SD03 : 상호출자액(액수입력), SD10 : 상호지급보증액(액수입력)

SD08 : 탈세 - 불구속고발 : -1점(감점), - 통고처분 : -0.5점(감점)

SD06 : 사치품수입(예년과 동일)

(2) 기업활동의 공정성(JST)

JS11 : 경제력 집중, JS12 : 시장지배 지위남용, JS13 : 부당한 공동행위

JS14 : 불공정 거래행위(위반), 위탁기업체의 준수사항 불이행업체 포함

JS14W: 불공정 거래행위(경고처분)

JS15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JS15F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과징금

JS15PB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영업정지

JS15W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 경고처분

JS16 : 불성실공시, 증권거래법 위반사항 포함

A: 경고, B: 정정명령(시정)및 경고

C: 주의, D: 경고 및 각서징구

*** 한정이익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분석시 참고

JS17 : 내부자거래

JS18NC : 중소기업지원(기업별 연계보증현황) - 수급기업수

JS18G : 지급보증(개수), JS18T : 기술지도(건수)

JS19 : 고유업종 침해 - A: 경고, B: 고발, C: 주의

(3) 사회봉사 기여도

SS24 : 지역사회지원

(4) 환경보호 만족도(ENV)

EN27A : 폐기물 반환현황(액수로 입력)

EN27B : 폐기물 예치금(액수로 입력)

EN28A : 에너지 사용량-연료량, EN28B : 에너지 사용량-전력량

EN29 : 폐기물 처리결과 - 발생량:A, - 자가처리:B, - 재활용업소:C

EN30 : 환경친화업체

EN31 : 특정유해물질 오염실태 - A: 영업정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B: 사용금지, C: 명령/개선, D: 경고

E: 고발, F: 과징금, 과태료

EN32 :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

(5) 소비자 만족도(CSD)

CS33 : 소비자 피해구제, CS34 : 제품결함, 배상, 환불, CS35 : 광고의 진실성, CS36 : 불공정약관 - B : 시정권고, - C : 시정명령, - F : 시정 요청

(6) 종업원 만족도(EMP)

EM37 : 중대재해, EM38 : 산업재해 은폐, EM39 : 작업환경, EM39D : 직업병, EM43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EM44 : 노조유무(노조있을 때 : 1로 표시, - 노조없을때 : 0으로 표시), EM45 : 노조구성(비율로 입력), EM45U : 노동조합원수, EM45T : 총사원수, EM46 : 노동쟁의, EM47 : 고용평등법 준수노력, EM47RW: 여사원 비율

(7) 경제발전 기여도(ECD)

EC49 : 연구인원비용, EC49S : 연구비용,

EC50 : 특허(건수로 입력), EC51 : 장영실상 수상기업체

2) SPSSPC+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부분적 결과에 대한 결합작업

: 각 7대 평가 항목별 구체적인 지표의 평점화 순위를 산출하여 피라미드
형의 결합작업

*.INC : 프로그램

*.SYS : 시스템파일의 생성

*.LIS : 평점화 결과물

3) 7대 평가항목의 통합작업 :

① 기업활동의 건전성(SDN) + ② 기업활동의 공정성(JST) + ③ 사회봉
사기여도(SSD) + ④ 환경보호만족도(ENV) + ⑤ 소비자보호기여도
(CSD) + ⑥ 종업원만족도(EMP) + ⑦ 경제발전기여도(ECD) = 1차
1,000점 만점(미세한 점수 차이에 대한 구별화)

4) 추가 고려점수별로 합산 = 2차 100점 만점(언론보도, 최종점수)

5) 통계결과에 따른 우수후보기업의 정보수집

6) 심사위원회의 심사(업계의 전문가의견 + 심사위원의 견해)

7) 자료집 발간 및 언론보도

8) 경제정의기업賞 시상식

☐ 7대 평가항목별 지표의 10위 내 평점결과 순위

1. 기업활동의 건전성 평가항목별 결과(10위)

순위	CODE	CNO	상장제조업체 (여/남)	규모	업종	내국주 지분율	내국주 지분율	대주주 독립성	상호출자	보유부동산	소배정지출	장고전 입출	회계상 (부채/자산)	상용지 구	경영책임 사자출수입	회계 상용
01	3708	.	이수화학	10	40	99.13	75.93	100.00	80.41	35.21	90.08	90.11	100.00	100.00	.00	169.64
02	7554	.	신일건설	20	95	82.81	68.73	100.00	72.71	85.01	97.78	93.87	100.00	100.00	-2.00	163.50
03	3504	.	동신제지공업	30	30	93.83	70.87	100.00	73.14	60.80	95.29	92.63	100.00	100.00	-2.00	163.21
04	7550	.	신화건설	10	95	67.03	78.47	100.00	84.48	88.92	92.04	88.13	100.00	100.00	-2.00	167.42
05	5604	.	현대금속	20	70	82.57	75.93	100.00	79.86	61.92	95.06	89.05	100.00	100.00	-2.00	166.37
06	1700	.	대한제분	20	10	72.87	84.80	100.00	73.33	86.24	91.21	83.05	100.00	100.00	-2.00	165.87
07	6281	.	한국전선	30	70	76.02	70.87	100.00	82.07	74.76	82.41	92.65	100.00	100.00	-2.00	165.28
08	2651	.	동일방직	20	20	88.99	81.39	100.00	60.82	65.97	100.00	84.67	100.00	100.00	-2.00	164.85
09	4506	.	극동유화	30	40	79.87	65.79	100.00	92.42	38.95	96.27	99.15	100.00	100.00	-2.00	164.57
10	4062	.	중의제약	20	50	83.02	58.14	100.00	78.71	81.83	88.29	89.02	100.00	100.00	-2.00	164.16

2. 기업활동의 공정성 평가항목별 결과(10위)

순위	CODE	CNO	S	I	상장제조업체 이	WJS11	WJS12	WJS13	WJS14	WJS15	WJS16	WJS17	WJS18	WJS19	총 점
01	6250	.	20	70	신일산업	20.00	9.81	20.00	20.00	20.00	17.00	20.00	10.00	10.00	146.81
02	7000	.	20	90	오리엔트시계	20.00	9.73	20.00	20.00	20.00	17.00	20.00	10.00	10.00	146.73
03	6700	.	20	80	금호전기	20.00	9.65	20.00	20.00	20.00	17.00	20.00	10.00	10.00	146.65
04	3452	.	20	30	이건산업	20.00	9.33	20.00	20.00	20.00	20.00	20.00	7.00	10.00	146.33
05	6457	.	10	80	백승전자	20.00	8.86	20.00	20.00	20.00	17.00	20.00	10.00	10.00	145.86
06	6454	.	10	80	한국전자	20.00	8.83	20.00	20.00	20.00	17.00	20.00	10.00	10.00	145.83
07	4202	.	20	40	한국화학품	20.00	9.62	20.00	20.00	20.00	17.00	20.00	9.20	10.00	145.82
08	3354	.	20	20	화송산업	20.00	9.74	20.00	20.00	20.00	17.00	20.00	8.57	10.00	145.31
09	6283	.	10	70	태일정밀	20.00	9.22	20.00	20.00	20.00	17.00	20.00	8.16	10.00	144.38
10	6430	.	30	80	한우전자	20.00	10.00	20.00	20.00	20.00	17.00	20.00	7.00	10.00	144.00
10	7002	.	30	90	범한전기	20.00	10.00	20.00	20.00	20.00	17.00	20.00	7.00	10.00	144.00

3. 사회봉사기여도(10위)

순위	CODE	C30	상장제도해당 (지표별합계)	규모	임금	장제인고용 (20명만점)	고용비고용 (20점)	복지지원 (20점)	기부금 (40점)	고려사항 (지역사회적인, 사회단체적인 기부금)	총 점 (100점)
01	3162	.	원	10	20	8.61	18.00	14.00	31.86	15.29	87.76
02	2304	.	호남식물	30	10	11.81	18.00	11.79	39.28	5.20	86.08
03	4651	.	동아제약	10	50	14.60	9.01	19.28	36.11	5.33	84.33
04	4066	.	농진자	10	50	8.27	10.19	20.00	38.04	4.25	80.76
05	7548	1118	금호건설	11	95	13.37	20.00	7.37	28.32	11.27	80.33
06	6409	309	대우전자	11	80	9.48	20.00	7.71	30.40	12.28	79.86
07	2102	.	보해양조	20	10	20.00	15.04	10.66	24.11	9.42	79.22
08	3701	903	한화종합화학	11	40	13.22	9.01	4.00	36.96	15.39	78.59
09	6901	112	현대미포조선	10	85	16.91	8.00	4.00	39.21	10.25	78.37
10	7506	1301	대림산업	11	95	8.13	19.23	7.83	32.75	10.25	78.19

4. 환경보호만족도(10위)

순위	CODE	C30	상장제도해당 (지표별합계)	규모	임금	환경친화성 숙련현황 (20명만점)	회계금 예산 (20점)	에너지 효율 (30점)	특정폐기물 처리 결과	수질개선관련 유해물질오염실태 (30점)	환경오염 피해발생조경 (10점)	고려사항 (환경오염) 기부금	총 점 (150점)
01	5806	.	의성실업	30	70	16.70	14.00	16.57	16.31	35.50	10.00	20.00	109.08
02	6000	.	제양전기	20	70	16.00	14.00	14.15	15.32	35.50	10.00	12.00	104.97
03	6210	.	한국코트렐	30	70	12.00	14.00	16.57	1.80	49.55	10.00	20.00	103.92
04	5057	1504	한라시멘트	10	60	16.66	14.00	9.46	15.38	35.50	10.00	.00	101.01
05	6413	.	삼화전자	20	80	17.15	8.00	10.99	19.02	35.50	10.00	12.00	100.66
06	5409	.	만호제강	30	60	8.00	14.00	16.47	16.11	35.50	10.00	20.00	100.07
07	6816	.	장원기화기	30	85	8.00	14.00	12.88	19.25	35.50	10.00	20.00	99.62
08	5054	1901	동양시멘트	10	60	20.00	14.00	12.91	6.42	35.65	10.00	.00	98.98
09	3101	.	중앙임업가공	30	20	12.00	14.00	11.72	15.70	35.50	10.00	20.00	98.91
10	5302	.	강원산업	10	60	12.00	14.00	11.09	16.19	35.54	10.00	.00	98.82

5. 소비지보호기여도(10위)

순위	CODE	C0	상장회사 이름	S 규모	I 업종	C33 소비재	C34 제품결합	C35 종교건설	C36 여간정리성	C37 정렬합산
01	4066	.	누심자	10	50	24.17	20.31	20.00	16.00	80.47
02	4061	.	동화약품	20	50	23.46	20.96	20.00	16.00	80.42
03	6283	.	태일정밀	10	70	25.37	18.82	20.00	16.00	80.19
04	4451	502	유공	11	40	25.22	18.95	20.00	16.00	80.17
05	4062	.	중외제약	20	50	23.18	20.86	20.00	16.00	80.04
06	4452	602	쌍용정유	11	40	25.10	18.94	20.00	16.00	80.03
07	3900	401	셀지화학	11	40	25.13	18.89	20.00	16.00	80.02
08	6284	.	삼보컴퓨터	10	70	24.51	19.05	20.00	16.00	79.56
09	1852	202	제일제당	11	10	24.19	19.33	20.00	16.00	79.52
10	5751	.	금강공업	20	70	24.53	18.68	20.00	16.00	79.20
10	6053	1205	두산기계	10	70	24.53	18.68	20.00	16.00	79.20

6. 종업원만족도(10위)

순위	CODE	C0	상장회사명	규모	업종	산 제품 비율 (40%이상)	직업환경 (10점)	교육훈련비 (30점)	사내복지 기금 (10점)	노사의 경쟁 경쟁중립도 (10점)	노조구성 (10점)	노동형태 (20점)	고용제도 근로조건 (20점)	고사상 (부양노동형태 제고노조부) 합계 20점	총 점 (130점)
01	4050	.	유한양행	20	50	35.18	10.00	28.76	2.96	10.00	5.80	20.00	20.00	.00	132.70
02	4064	.	한독약품	20	50	40.00	10.00	28.66	4.00	4.00	4.95	20.00	20.00	.00	131.61
03	4504	.	한국셀식유	30	40	28.00	10.00	27.95	8.00	8.00	9.51	20.00	20.00	.00	127.47
04	6454	.	한국진자	10	80	39.40	10.00	10.44	9.00	9.00	8.93	20.00	20.00	.00	127.28
05	6551	418	금성제전	10	80	35.48	9.00	22.01	8.00	8.00	7.84	20.00	20.00	.00	126.33
06	3602	.	웅진출판	20	30	37.44	10.00	29.18	4.00	4.00	1.61	20.00	20.00	-10.00	126.24
07	4051	.	동아제약	10	50	37.59	9.00	27.30	4.00	4.00	2.74	20.00	20.00	.00	124.62
08	4058	.	유유산업트	30	50	28.00	10.00	28.88	4.00	9.00	4.58	20.00	20.00	.00	124.45
09	7506	1301	대림산업	11	95	23.39	10.00	29.74	4.65	9.00	5.86	20.00	20.00	.00	122.64
10	4203	.	라미화학품	20	40	28.00	10.00	26.78	4.00	4.00	9.52	20.00	20.00	.00	122.30

7. 경제발전기(여도(10위))

순위	CODE	상장회사명 (지분비율)	연구개발 (30점만점)	연구역량 (20점)	특 혜 (20점)	수익성 (10점)	성장성 (10점)	선배투자 (10점)	조세부 (10점)	인력 (20점)	노 동 생산 (10점)	수출비중 (10점)	고려사항(경쟁인간) 자점 10점	총 점 (150점)
01	6405	삼성전자	30.00	10.00	10.98	19.39	9.26	7.27	6.47	3.91	10.00	6.89	10.00	124.17
02	6751	현대자동차	24.74	7.02	19.29	10.09	7.16	8.82	3.66	9.90	9.25	5.03	9.50	114.48
03	5201	금강	28.80	4.68	7.38	19.08	5.44	7.83	9.52	15.72	4.08	2.89	2.00	107.49
04	1754	서용컴셀	27.78	4.24	7.40	16.51	8.70	5.30	7.37	8.82	4.43	9.61	5.00	105.17
05	6902	삼성중공업	28.01	9.59	7.69	9.91	7.16	2.04	2.92	9.39	9.80	8.32	9.00	103.82
06	6469	대덕전자	14.76	4.93	19.19	18.33	5.63	9.61	3.57	13.80	5.38	7.31	00	102.52
07	4003	고려화학	28.41	6.90	7.74	19.11	6.42	2.92	9.57	9.91	4.16	4.86	2.00	101.99
08	6905	만도기계	28.36	9.54	7.69	10.80	8.41	4.06	2.67	7.57	9.74	4.02	9.00	101.86
09	5406	고려제강	17.86	3.91	7.18	19.15	5.75	8.49	9.64	11.05	4.33	9.67	2.00	99.03
10	3707	금호석유화학	27.22	5.15	8.07	15.79	4.88	7.70	8.65	5.23	4.20	9.53	2.00	98.42

이상의 통제처리절차에 따른 사례를 볼 때,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오로지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조직체가 있는 반면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이윤의 사회 환원을 꾀하는 기업들도 있다. '이웃사랑'의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후자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나눔을 실천하는 성경적인 기업의 사회적 성과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적 책임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성경적 기업경영으로 존경받을 만한 대표적 기업인 섬유·의복 업종 2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주)신원을 지표선정 과정에 따라 평가해 본다.

신원그룹은 94년부터 신뢰와 정직의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상호 성장이라는 취지의 'BOTH-2000'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 상호 신뢰 분위기의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부정부당행위'를 펼치기도 했다. 신원그룹의 모기업인(주)신원은 섬유·의복 및 피혁제품 제조업 68社중 1위를 차지하였는데 5회에 이어 2년 연속 업종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회사는 1973년 신원통상(주)으로 설립된 이래 믿음중심, 미래지향, 고객만족의 3대 경영 이념으로 국내의 섬유제품 수출을 주도하면서 성장하여 90년(주)신원으로 상호 변경과 함께 '에베에셀사업본부'를 발족, 자기 상표를 개발하여 내수 패션 시장에 진입, 현재는 국내 패션업계의 선두 주자로 부상하였다.

건전한 기업정신과 기업활동의 건전성 : 그룹경영 이념의 첫 번째 항목으로 믿음을 삼은 것은 신원의 기업정신을 가장 잘 나타낸 것으로 경영자와 근로자의 믿음, 직원 상호간의 믿음, 고객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이를 협력 업체와도 연결시켜 한 번 인연을 맺은 업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사실상 직통의 핫라인 '참빛소리'를 운영하여 고객과 거래업체의 불만을 접수하고 있다. 대표이사 사장 및 기획조정 실장 등이 전문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업무용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96년 조세의 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등 기업활동의 건전성을 대외

적으로 공인 받고 있다.

사회봉사 기여도 : '신원문화재단'을 운영하여 소년소녀 가장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7년에는 더욱 활동의 폭을 넓혀 갈 예정이며 또한 '신원에벤에셀 앙상블'을 창단하여 96년에만 20여 회에 걸쳐 선교시설, 고아원, 양로원, 군부대 등의 공연을 통해 사랑의 정신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의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사옥 인근 지역에 위치한 지하철 역사에 조정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소비자보호기여도 :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 비율을 100%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판매사원 실명제'를 통하여 판매를 담당 한 사원이 고객에 대해 완벽하게 책임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약속장부제'를 실시하여 고객에 대한 약속을 문서화하여 실행 중이기도 하다.

현재 신원은 20여 년 전통의 수출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세계시장 다변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생산 기지도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계 굴지의 패션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또한 취약한 국내 브랜드의 세계화 전략을 위해 자사의 모든 브랜드를 세계 각국에 상표 출원하였고 세계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패션 선진국인 뉴욕과 파리에 지사를 설립 중이다.

요컨대 기업은 인간적 성격의 사회 시스템과 합리적 성격의 경제 시스템의 상호작용 속에 그의 성과 목표를 수행하게 된다. 기업을 오로지 합리적 경제 시스템으로만 규정지어 구성원들의 욕구와 갈등 그리고 성취 동기 등의 인간 행동 근원을 무시하고 오로지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적인 기술이나 경제적 도구로만 본다면 기업의 목표 달성은 결코 이룩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기업생산의 주체로서의 구성원, 기업가치와 성과창출의 결정 요소로서 인적 자원 혹은 그의 행위에 대한 이해와 시각의 강조가 필연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경영자가 가지는 임무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모든 활동에 확장함으로써 노동과 경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잠 29:7).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양사회, 민주사회, 급변하

는 사회 시스템 하에서는 기업을 오로지 결과 지향적인 입장에서 재화 내지 서비스를 창출하는 합리적 생산 시스템으로만 규정지어서는 안되고, 과정 지향적인 입장에서 재화 내재 서비스를 창출하는 인간적 사회 시스템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업도 체질이 튼튼해야만 바람직한 경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존중과 이에 대한 목표관리가 기업경영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포하고, 구제하며, 불평등을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추구하여 진실을 찾아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신앙과 기술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포천>지는 미국의 존경받는 10대 기업과 업종별 순위를 가려내기 위해 1만 3천명의 경영자·재무 분석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례 기업 이미지 설문조사를 실시 △재무적 건전성 △사회환경에 대한 책임 △장기적 투자가치 △상품과 서비스의 질 △경영의 질 △훌륭한 인적 자원 개발 여부 △기술혁신 △회사 자산의 효율 등 8개항에 대해 종합 점수를 매겨 가장 존경받는 기업과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표하고 있다. 96년도 「최우수 기업상」은 코카콜라(2년 연속)에 돌아갔다. 이 회사의 고이주에타 회장은 “코카콜라를 종교처럼 신봉, 헌신적으로 일해 준 직원들 덕분”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CEP(The Council on Economic Priorities)라는 미국 시민단체는 우리처럼 공적 자료를 사용 △자선헌금 △여성지위향상 △고용평등 △정보공개 △지역사회 협력 △환경보호 △근로자 가정의 이익 △근로복지와 안전 등 8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각각 그 好·不好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 소비자 유관업체 중심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로 소비자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10개 항목별 성과가 탁월한 5-6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기업 양심상’을, 성과가 극히 불량한 2-3개 기업에 대해서는 ‘불명에 칭호’를 전달하고 Shopping for a Better World 라는 소비자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소비자가 좋은 회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 책자는 <뉴욕 타임즈> 등 주요 언론들의 강력한 지원 아래 연간 100만

부 가까이 읽히는 베스트셀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평가 결과를 1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그 홍보효과가 지속되게 함으로써 좋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며, 이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한 경제적 투표(economic vote)로 유도(교육)하는 합리적 실용주의의 개념으로 사회적 생산성을 위한 높은 가치를 갖는다.

V. 맺는말

우리의 경제력은 94년 현재 외형상으로는 GNP 세계12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은 선진국의 약1/6에 불과한 현실이고, 윤리성 사회기반 붕괴와 제도 개혁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의 상실로 무역 적자가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경제 구조의 불균형은 아직 윤리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독과점적 소수 재벌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윤리 규범과의 갈등도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 민주화라는 과제도 어려운 상황이며 계층간, 지역간의 경제의 균형 발전은 더욱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재산가 345명의 총재산 합계 금액이 세계 인구의 45%의 1년간의 수입액 합계와 맞먹는 사실과도 비유될 수 있고⁶⁾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 예를 들면 88년 6월 현재에 우리 전체 인구 중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점유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토지 공개념 연구(위)).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는 소수의 개인이나 국가에 경제력이 독과점적으로 집중된다는 것이고 그 소수의 재산가들이 어떠한 청지기적 윤리관을 갖는가 미래 사회를 좌우하게 될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해 있는 것이다.

이제 칼빈의 예정설, 선택설에 의해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심사하

6) UNDP 발행, "CHOICES", 'Matters of fact' 중에서, JAN, 1997.

며 나가는 17세기의 엄정주의자(嚴正主義者)와 18세기의 메소디스트의 금욕적 직업윤리(Ethos)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재해석, 재개발하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정의가 떠나 버린, 금욕주의가 필요없는 경제적 팽창과 기술혁신에 의존하는 사적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의 우상을 극복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최고의 계명을 실천가치 기준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정의지수에서 예시하는 것과 같이 정당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적정이윤을 창출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인간 생명을 존중하며, 환경과 사회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청지기(기업가) 정신이 21세기 인류 복지를 좌우할 성경적 기업윤리와 사회적인 책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통한 자율적 책임윤리와 함께 21세기 지구상의 복지환경문제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사회단체들이 하나님과 사회친화적인 정직한 기업들이 잘 되도록 제도의 개혁을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이 사회와 세계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감시하고, 평가하고, 격려하여 기업을 통한 부의 증진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부채가 되지 않고 성경적 기업이 잘 되는 정의사회(암 5:24)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을 보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지수는 중지를 모았을 뿐 우리 시대의 윤리적 전통과 규범을 고려한 상식적인 성경적 기업윤리의 구체적인 실천가치 기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덕적 완벽주의가 아니고 도덕적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이제 학계, 종교계 등이 서로 도와서 한국적 자본주의의 성경적 기본 가치와 기업의 구체적인 실천 가치 기준을 계속 개발하여 이의 실천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7)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과 행동을 조직적으로 무위의 명상, 무익한 사교, 사치 등을 철저히 배격한 근면과 경건, 금욕과 절제를 하고, 신의 뜻에 맞는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윤리와 책임으로 여기는 것.

참 고 문 헌

- 경제정의연구소, 「KEJ모형에 의한 경제정의성파로 본 우량기업평가」, 도서출판 경실련, 1991.
- _____, “경제정의지수로 본 한국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보고서”, 2회·5회.
-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 편, 「현대사회와 정의」, 철학과 현실사, 1995.
- 김세열, 「기독교 경제학」, 도서출판 무실, 1990.
- 문시영, 「기독교 윤리 이야기」, 도서출판 한들, 1996.
- 서광조·이웅권 공저, 「기업윤리와 경제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6.
- 신동욱 옮김, 앨런 래더 지음, 「좋은 회사 존경받는 기업인」, 매일경제신문사, 1995.
- 신유근·백삼균·홍길표 공저, 「기업과 사회」,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5.
- 이만기, 「기독교와 경제윤리」, 일신사, 1992.
- 이재율, 「기독교와 경제정의」, 「통합연구」 제6호, Feb 1990.
- 조성표, 「성경의 경제관」, 「통합연구」 제6권 2호, Oct 1993.
- 최문환, 「막스 웨버 연구」, 삼영사, 1977.*
- Chewning, Richard C., *Christians in the Marketplace Series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The Practice*, Navpress, 1990(기독교경영연구회 역/추임 지음, 「기업경영과 성경적 원리」, IVP, 1993).
- Gay, Craig M.,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Whom? : The Recent Evangelical Debate Over Capitalism*,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1991.
- Goudzwaard, Bob, *Capitalism and Progress*, Toronto, Canada, Wdege Publishing Foundation, 1979.(김병연·정세열 옮김/하웃즈바르트 지음, 「자본주의와 진보사상-서구사회에 대한 비판적 진단」, IVP, 1989).

Motyer, J. A., *The Day of the Lion*, The Christian Wisdom Publishers, 1987(한영훈 옮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기독교 협회, 1987).

Richard C. Chewning, John W. Eby & Shirley J. Roels, *Business Through the Eyes of Faith*, Christian College Coalition, 1990(안동규·한정화 옮김, 「신앙의 눈으로 본 경영」, IVP, 1995).



■ 김홍권 ■

1936년 출생, 중앙대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1년 수료, 前 영진약품공업(주) 마케팅본부장(이사), 명지무역상사(주) 대표, 현 한국자유기고가협회 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이며, 은평성결교회 장로, 기독교 생명의 전화 상담위원, 노동부 산업재해예방실무추진위원, 「경제정의지수 창안」 및 「내가본 세상」, 「범죄비용의 경제학」외 다수의 글.



■ 전병화 ■

1965년 출생, 경북대 회계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현재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프로젝트팀 연구부장으로 재직,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대의원으로 서울지부에서 섬기고 있다. 주요 논문은 「특별상각변경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직운동에 따른 정직지표개발」, 「3대 경제주체가 지녀야 할 성경적 재물관」, 「한국기업의 경제정의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성경적 기업윤리관 현실적 모색」외 다수